

# 책으로 풀어보는 '왕따' 문제

아이들 · 교사 · 학부모 등 다양한 입장에서 접근

학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문제로 까지 번진 '왕따' 해결에 나선 책들이 많다. 지난 1월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4명 가운데 1명, 교육부가 밝힌 피해사례 역시 지난 한해 동안만 4천건, 피해학생수 5천 4백여명에 이른다. 지난 한해만 100여명이 집단 따돌림을 이유로 자살하자 검찰과 교육계가 나서고, 대통령이 직접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실상, 그 대책을 피해·가해 당사자들과 학부모, 교육계 등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본 책들이 이 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접근한다.

'왕따'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 신체적·정신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약하고 모자라 보이는 아이, 반대로 잘난 척하고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며 공부만 잘하는 아이도 따돌림의 대상이다. 염치없이 빌려쓰기만 하는 아이, 지저분한 아이, 거짓말 잘하는 아이, 고집장이, 피병을 잘 부리는 아이, 일만 벌여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아이 등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아이들의 경험담을 담은 책은 왕따의 실태와 원인을 보여준다.

## 아이들 체험에 근거한 해결책

《왕따 당하지 않는 비결 55가지》(우리기획, 삼성출판사), 《우리만 왕따》(한글문화교육원, 장백), 《왕따 숨은 이유 찾기》(이복영, 공옥)는 아이들 체험이 내용의 주가 된다. 생생한 체험담에는 공부 못한다고, 키가 작거나 못생겼다고, 전학왔다고 집단따돌림하는 등 중잡을 수 없는 원인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원인이 보이면 해결책은 간단한 법. 이 책들은 왕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다룬다. 역할 연극을 통해 서로 이해하기, 친구를 불러모으는 특별한 취미 만들기, 먼저 사과하는 용기, 긍정적 사고로 친구 칭찬하기 등 구체적 내용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교사들의 입장에서 쓴 책 《왕따 극복하기》(서영창, 산성미디어),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113가지 교육법칙》(루엔 존슨, 텔디자인), 《왕따이야기》(공숙자, 계림)는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지르는지조차 모르

는 아이, 소리없는 폭력에 하루하루 생기를 잃어가는 아이" 모두, 즉 피해자와 가해자를 함께 보듬는 세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무풍지대로 보이는 교실에서 집단따돌림의 징후를 알아내려면 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가해학생은 아니지만 자신도 '왕따'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 방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무기명 투표를 통해 학교의 상황을 알아보는 것은 한 방법. 만일 피해사례가 있다면 자유토론을 통해 집단따돌림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나 역할 연극을 시키거나 다양한 상담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활발한 소집단 활동이나 토론문화의 정착도 문제가 음지로 숨어드는 것을 방지한다.

자신의 자녀가 이 무시무시한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 친구미디어에서 나온 《엄마, 학교가기 싫어요》는 집단따돌림이 결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과 부모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 영국의 동화작가 제니 알렉산더는 자신의 자녀 가운데 한 아이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을 담담하게 풀어놓고 있다. 저자는 '왕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실용적인 문제보다는 '아이가 얼마나 편안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을까' 하는 본원적인 문제를 담고 있어 자녀교육지침서로도 손색이 없다.

이 책은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이 상처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유치해 보이는 심리치료 방법이라도 아이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안도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왕따 책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르웨이의 교육심리학자인 단 올베우스가 쓴 《바로보는 왕따, 대안은 있다》(삼신각)다. 학생들의 폭력이 새로운 문제도 아니고,



'왕따'의 사회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쏟는 책들이 많다. 《바로보는 왕따, 대안은 있다》중에서.

어느 지역에 한정된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르웨이에서 10여년간 정부 주도로 진행된 전국 규모의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왕따' 없애는 교육 프로그램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개입 프로그램'은 설문조사, 폭력학생과 학교운동장의 변화, 상담전화, 교사와 학부모회의, 학부모 써클 등의 학교 수준의 조치와 학습수준의 조치, 개인수준의 조치 등으로 세부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수준의 조치로는 확인·칭찬·처벌 같은 폭력에 대항할 학습규칙 정하기, 협

동학습 등을, 개인수준의 조치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지한 대화, 중립적 학생들의 협조, 학부모와 관련 학생들간의 대화 등을 제시했다.

일련의 책들이 '왕따'라는 사회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왕따현상을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다루면서 침소봉대 될 수 있다는 것. "아이들이 더러 싸우는 것은 흔한데, '내가 바로 왕따'라고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또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다"는 한 관계자의 지적이다.

— 이현주 기자

## 외톨이의 슬픔 소재로 한 어린이책들

외톨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동화책이 눈길을 끈다. '왕따'의 고통에 감정이입함으로써 감동과 깨달음을 함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메'의 본고장 일본의 《모르는 책》(우메다 수운사쿠, 길벗어린이)은 재채기를 했다는 이유로 이지메를 당하는 '돈짱'의 고통을 모른 척했던 '나'의 갈등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반면, 이탈리아 동화작가 마리아 스트리아네세가 쓴 《어릿광대 자코모》(서광사)는 열심히 노력해 좋은 실력을 갖고 있지만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해 외톨이가 된 '범생' 왕따 이야기. 서커스단을 떠나 추위와 배고픔과 병에 시달리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가 입시전쟁에 지쳐 친구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우리 작가 채인선씨가 쓴 《내 짝꿍 최영대》(재미마주)는 가난하고 지저분한 최영대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이야기지만 결과는 해피엔딩이다. 친구들이 영대를 이해하는 과정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면 통한다는 것을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시키는 아이 모두에게 들려준다. <이현주>



《내 짝꿍 최영대》중 한 장면.